

셸리의 사랑관 연구: 『에피사이키디온』을 중심으로*

장 성 현

단독 / 고려대학교

[국문초록]

셸리는 낭만주의 시인들 가운데 사랑에 대해 가장 깊은 고찰을 한 시인이었다. 그는 『에피사이키디온』을 비롯한 다수의 연애시와 산문에서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셸리의 1821년 작 『에피사이키디온』은 그가 이탈리아에서 만난 테레사 비비아니라는 젊은 여성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그의 가장 긴 연애시인 이 작품에서 셸리는 사랑의 이상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셸리가 연정의 대상인 에밀리아(비비아니의 별칭)를 ‘누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가 성적인 결합을 넘어서는 영혼의 융합,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는 사랑을 갈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엮히지 않은 혼합”을 이상적 사랑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데서 드러나듯 셸리는 개인성의 상실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셸리의 일부일체제 비판은 비윤리적인 주장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의 입장에선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 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결혼을 낳은 제도에 엮매여 역지로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사랑의 능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오직 한 사람과 평생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혼제도에 대한 공격은 셸리가 사랑을 상상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셸리의 철학에서 사랑과 상상력은 거의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둘 다 내면세계와 외부세계가 이루는 조화로운 관계에서 발생한다. 셸리에게 상상력이 자유의 이념이 실현된 이상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사랑은 그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주제어: 셸리, 사랑, 상상력, 『에피싸이키디온』, 『사랑에 대하여』

I. 들어가는 말

셸리(Perch Bysse Shelley)는 그의 가장 유명한 산문 『시의 옹호』(*A Defence of Poetry*)에서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도덕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외출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나 행위, 우리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숭고하게 선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 신경을 집중해서 광범위하게 상상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인류의 고통과 기쁨이 그 자신의 것이 되어 한다. 도덕적 선의 최상의 도구는 상상력이다. ... 시는 상상력을 언제나 새로운 기쁨의 생각들로 가득 채움으로써 상상력의 영역을 확장한다. ... 시는 운동이 사지(四肢)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 도덕성의 기관이 지닌 능력을 강화한다. (682)

The great secret of morals is Love; or a going out of our own nature, and an identification of ourselves with the beautiful which exists in thought, action or person, not our own. A man to be greatly good, must imagine intensely and comprehensively; he must put himself in the place of another and of many others; the pains and pleasures of his species must become his own. The great instrument of moral good is the imagination:... Poetry enlarges the

circumference of the imagination by replenishing it with thoughts of ever new delight. ... Poetry strengthens the faculty which is the organ of the moral nature of man in the same manner as exercise strengthens a limb.¹⁾

셸리는 여기서 사랑을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외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생각이나 행위, 혹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아름다움’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상력이다. 진정으로 사랑을 하려면 열정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행복과 고통을 상상력을 통해 나 자신의 것으로 느낄 줄 알아야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이다. 셸리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최상의 수단으로 시읽기를 드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운동을 해야 체력을 키우듯 상상력의 산물인 시를 읽어야 상상하는 힘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도덕심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셸리로서는 시읽기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소양이다.

이렇듯 셸리의 사랑관은 그의 시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가 시인을 혁명의 진정한 주체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급진주의와도 맞닿아 있다.²⁾ 사실 셸리는 낭만기의 주요 시인들 중 사랑의 본질에 대해 가장 심오한 탐구를 한 시인이었다. 그는 『에피사이키디온』(*Epipsychidion*)을 비롯해 다수의 연애시를 창작했고, 『사랑에 대하여』(*On Love*)라는 제목의 에세이도 썼다. 그리스어에 조예가 깊었던 그가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향연』(*The Symposium*)을 1818년에 영어로 번역한 것도 사랑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연』의 플라톤적 사랑관은 『에피사이키디온』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은 셸리의 작품세계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관념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되 특히 그의 1821년 작 『에피사이키디온』에 논의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한다. 사실 총 604행의 2행 연구로 쓰인 이 작품은 그의 연애시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다. 낭만적 사랑을 다룬 셸리의 시 중에서 가장 긴 작품이 『에피사이키디온』이다.

호드가트(Patricia Hodgart)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사랑의 힘에 대한 셸리의 플라톤적 믿음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91). 에피싸이키디온은 그리스어로 “작은 영혼에 대하여”를 의미하는데, 발음하기도 힘든 그리스어가 제목으로 붙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에피싸이키디온』은 셸리의 시들 중에선 일반 독자뿐 아니라 영미권의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영문학계에선 『에피싸이키디온』에 대한 연구논문이 2012년에 단 한 편 나왔을 뿐이다.³⁾ 본고는 『에피싸이키디온』이 담고 있는 셸리의 사랑관의 주요 특징들을 그의 다른 작품들과 연관해 고찰하면서, 특히 사랑과 상상력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랑과 상상력의 긴밀한 관계는 위에서 논의한 『시의 옹호』의 한 대목에서도 드러난 바이나, 『에피싸이키디온』을 비롯한 셸리의 여러 작품들에서 이들의 관계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에피싸이키디온』은 셸리가 1820년 이탈리아 여행 중 알게 된 테레사 비비아니(Teresa Viviani)라는 젊은 귀족여성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비비아니는 당시 19살로 피사(Pisa)의 총독인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적당한 혼처를 찾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딸을 수녀원에 감금했다. 셸리와 부인 메리(Mary)는 피사 체류 중에 비비아니의 사연을 듣고 그녀를 여러 번 방문하며 친분을 쌓았다. 셸리 부부는 비비아니를 에밀리아(Emilia)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특히 셸리는 비비아니와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꽃이며 짧은 시들을 써 보낸 걸로 보아 그녀에게 연정을 품었던 듯하다. 이 무렵 셸리는 단테의 『새로운 삶』(*La Vita Nuova*)을 읽는다. 단테가 베아트릭체에 대한 연모의 정을 담아 썼던 시들을 읽은 후 셸리가 1821년 1-2월에 비비아니에게 품은 자신의 감정을 시 형식으로 술회한 작품이 『에피싸이키디온』이다. 여성적 미의 찬미가 작품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시는 단테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숄츠(Earl Schulze)는 셸리가 플라톤주의보다 단테가 사랑의 시인으로서 이룬 성취에 훨씬 더 큰 빛을 쬐다고 주장한다(197).⁴⁾ 그러나 『에피싸이키디온』의 가치는 이 시가 단지 비비아니에 대한 연정을 노래한 시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사실 셸리가 비비아니에게 품었던 감정은 잠깐 지나가는 성격의 것이었다. 비비아니의

결혼과 함께 그의 연정도 사라진다. 셀리는 이 작품에서 이상적인 사랑의 본질을 탐색하고 있으며, 자신과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에 대한 자전적인 고백까지 하고 있다. 이 당시에 자서전이 아직 태동 중인 문학장르였음을 생각할 때, 셀리가 자신의 시에 자전적 성격을 입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까닭에 셀리는 『에피싸이키디온』을 “내 인생과 감정의 이상화된 역사”라고 불렀다(795).⁵⁾ 도노반(Jack Donovan)은 『에피싸이키디온』이 셀리의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자서전”에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작품이라고 지적한다(86).⁶⁾ 이 시가 익명으로 런던에서 출간될 계획이었음에도 셀리가 출판업자에게 100부만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독자들이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저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⁷⁾ 셀리는 출판 부수를 제한한 것으로는 안심이 안 되었던지 서문을 따로 작성하여 시의 저자는 피렌체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는 이런 노력에도 독자들은 셀리가 『에피싸이키디온』의 저자라는 사실을 곧 간파한다.

II. 『에피싸이키디온』에 나타난 셀리의 사랑관

『에피싸이키디온』은 시적 화자가 에밀리아를 “상냥한 영혼! 그 고아의 영혼의 누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한다.⁸⁾ “그 고아”는 셀리를 가리킨다. 즉 셀리는 에밀리아를 자신의 영적 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호칭의 함의는 밑에서 논의할 것이다. 2연 첫 행에서 화자가 에밀리아를 “가없는 새장의 새”(Poor captive bird)라고 부르는 것은 수녀원에 갇혀있는 비비아니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3연 첫 행에선 에밀리아를 “고결한, 영혼의 날개 달린 마음”(High, spirit-winged Heart)이라 부르더니, 4연 첫 행에선 또 “하늘의 천사”(Seraph of Heaven)라고 부른다. 그러고선 에밀리아를 묘사하는 어구들을 다음과 같이 격정적으로 나열한다. 아래 대목을 보면 블룸(Harold Bloom)의 말대로 에밀리아는

여성이 “체현할”(incarnate) 수 있는 모든 것을 체현하는 인물이다. 참고로 블룸은 『에피싸이키디온』을 셸리의 가장 독창적인 시라 평가한다(335).

하늘의 천사! 너무나 온화해 사람 같지 않은,
 저 빛나는 여성의 형상 밑으로
 견딜 수 없는 그대 안의 빛과 사랑과 불멸의
 모든 것을 베일로 가리고 있나니!
 영원한 저주 속의 감미로운 축복이여!
 이 등불 없는 우주의, 베일로 가린 영광이여!
 그대 구름 너머의 달이여! 그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형상이여! 그대 폭풍우 위의 별이여!
 그대 경이로움이여! 그대 아름다움이여! 그대 공포여!

Seraph of Heaven! too gentle to be human,
 Veiling beneath that radiant form of Woman
 All that is insupportable in thee
 Of light, and love, and immortality!
 Sweet Benediction in the eternal Curse!
 Veiled Glory of this lampless Universe!
 Thou Moon beyond the clouds! Thou living Form
 Among the Dead! Thou Star above the Storm!
 Thou Wonder, and thou Beauty, and thou Terror! (ll. 21-29)

첫 행부터 에밀리아의 여러 상이한 이미지들을 메타포(은유)로 제시한 화자는 4연에 이르러선 아예 쏟아내고 있다. 처음에 제시한 “하늘의 천사”는 4행에 걸쳐 부연 설명하더니 다음에는 한 행에 한 이미지, 그 다음에는 한 행에 두 개의 이미지, 심지어 세 개의 이미지까지 창조한다. 에밀리아에게 적합한 이미지를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절박해지면서 그의 감정도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에밀리아가 대변하는 이상적인 여성성이라는 것이 사실 언어로 포착하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자가 같은 연 후반부에서 “지금 그대를 흐리게 하는 희미한 말들조차도 / 번개처럼, 진기한 빛으로 번쩍인다”(33-34행)라고 쓰고 있는 것은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⁹⁾ 자신의 언어는 그 한계로 말미암아 에밀리아의 광채를 돋보이게 하기보단 오히려 가리기 십상인데 지금 에밀리아의 존재로 인해 전에 없이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맥데이터(Ghislaine McDayter)가 설명하는대로 에밀리아의 시선이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redeem) 능력이 있는 것처럼¹⁰⁾, 에밀리아의 존재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형용하기 위해 시인이 쓰는 언어까지 회복한다(42). 5연 초반부에서 화자는 에밀리아를 “이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진 젊음의 환영”(42행)이라고 부른다.¹¹⁾ “환영”(vision)이라는 단어도 암시하는 바이지만 워런(Andrew B. Warren)은 에밀리아가 완전히 자유롭고 거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무엇, 비(非)물질성으로 인해 어딘가에 가두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89). 호드가트는 또 에밀리아를 이상적 미(美)의 체현이라고 말한다(89).¹²⁾ 에밀리아를 언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그녀의 이러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셀리는 120행에선 에밀리아를 “봄과 젊음과 아침의 메타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아예 ‘메타포’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메타포들로는 에밀리아를 온전히 묘사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¹³⁾ 이런 까닭에 울머(William A. Ulmer)는 “『에피싸이키디온』은 메타포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평하고 있다(138).

화자는 시의 1행에서 에밀리아를 영적인 누이라고 부른 바 있다. 또 화자는 130행에선 에밀리아를 “배우자! 누이! 천사!”(Spouse! Sister! Angel!)라는 성격이 상이한 명칭으로 부른다. 390행에 가서는 에밀리아에게 “순결한 누이”(vestal sister)로 남아달라고 하면서, 몇 행 뒤에서는 모순적이게도 신부로서 자신과 결합해달라 간청하기도 한다. 사실 보통의 연인관계에 비추어볼 때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누이’의 호칭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 부자연스러움은 화자가 5연 중반에서 “우리 둘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였으면!”(45행)이라고 말할 때 한층 더 깊어진다.¹⁴⁾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기도 한 여성과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 자란 쌍둥이 남매 관계이기를 바라는 것은 근친상간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다. 블룸은 셸리가 에밀리아와 성적인 결합 이상의 것,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성격의 결합을 갈망한다고 지적한다(337). 셸리는 자신의 작품세계에서 이 갈망을 종종 근친상간의 형태로 충족시키는데, 블룸에 따르면 셸리에게 근친상간은 “아주 시적인 사건”이다(337).¹⁵⁾ 셸리는 연애의 상대가 나와 (같은 자궁에서 잉태된 남매처럼) 근원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없다면 그 연애는 한때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 되고 상대 역시 욕망의 충족 대상 이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같은 5연의 말미에서 화자가 하는 말 “난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난 당신의 일부예요”(52행)도 셸리의 이 같은 사랑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⁶⁾ 워런은 셸리가 회구하는 사랑은 영혼의 “융합”이라고 말한다(90).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영혼이 융합되어 정말로 내가 그의 일부이듯 그도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맥데이터가 화자의 말 “난 당신의 일부예요”는 메타포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42). 시적 화자와 에밀리아의 융합이 일어난 후, 화자가 전에 “이 등불 없는 우주의, 베일로 가린 영광”(26행)이라 불렀던 에밀리아, 빛이 없어 컴컴한 우주임에도 너무 밝아 베일로 가리지 않으면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에밀리아는 이제 “사랑스런 등불”(53행)이 되어 화자의 뮤즈의 날개를 태운다.¹⁷⁾

사랑의 융합이 낳는 궁극적 현상은 블룸이 셸리의 시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대목 중 하나로 꼽은 다음 대목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녀 존재의 영광은, 거기서부터 발하여,
 탁하고 텅 빈, 차가운 대기를 빛과 움직임의,
 사랑이 만든, 엷히지 않은 혼합의 따뜻한 그림자로
 얼룩지게 한다. 하나의 격렬한
 산포, 하나의 고요한 편재,
 이들의 흐르는 외곽선들이 자신의 흐름 속에서
 그녀 뺨 주변에서 섞인다. ...

The glory of her being, issuing thence,
 Stains the dead, blank, cold air with a warm shade
 Of unentangled intermixture, made
 By Love, of light and motion: one intense
 Diffusion, one serene Omnipresence,
 Whose flowing outlines mingle in their flowing
 Around her cheeks (ll. 90-96)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구는 셸리적 사랑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얽히지 않은 혼합”이다. 19세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남녀관계의 모습, 즉 ‘우월한’ 남성이 ‘열등한’ 여성을 자신의 뜻에 순응시키는 것은 여성을 남성과 얽히게 하려는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본래 남녀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연인과 친밀하게 섞이고 녹이고 함께 녹아 둘로부터 하나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¹⁸⁾ 그러나 플라톤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1+1=1이라는 식의 합일은 현실에선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을 수반하는 ‘흡수’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평등한 젠더관계로 인해 이 소유의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다. 워런은 셸리가 『에피싸이키디온』에서 이상화하는 사랑은 1+1이 플라톤주의가 지향하는 1이 아니라 2가 되는 사랑이라고 설명한다. 이 사랑은 개인을 고독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개인성을 상실하게 하지는 않는다. 셸리는 142행 이하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비록 달라도,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저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불화 없이 다른, 음악의 음표처럼요?”(142-45행)라고 묻는데, 이 구절에 사랑은 “얽히지 않은 혼합”이라는 생각이 잘 담겨있다.¹⁹⁾ 서로의 다름이 불협화음을 낳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발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랑이다. 맥데이터는 셸리가 품고 있는 사랑의 판타지의 핵심에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위치한다고 말한다(42). 맥데이터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 용어는 “얽히지 않은 혼합”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런은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얽히지 않고 혼합되어 사랑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unentangled intermixture’를 발음할 때 느끼게 되는

혀의 긴장 상태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한다(88).

위 인용 대목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엮이지 않은 혼합”의 경지에 이른 사랑이 그 따스함으로 “탁하고 텅 빈, 차가운 대기”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셸리는 위 대목 바로 밑에서 “활기찬 아침의 심홍색 맥박이 눈처럼 차가운 대기의 흰구름 안에서 떨리듯이”(99-100행)라는 비유로 이 변화를 보충해 설명한다.²⁰⁾ 샌디(Mark Sandy)는 셸리적 사랑의 개념을 엔티타입(antitype, 對型)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quest)으로 파악하는데, 이 두 구절에서 잘 예시가 되고 있다(273).²¹⁾ 엔티타입은 셸리가 『시의 옹호』에서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놓고 있는 아이에 비유하여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다.²²⁾ 6연에서 에밀리아를 약기 ‘류트’로 칭한 후 부연하는 다음 설명에서도 사랑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동일한 관념을 읽을 수 있다. “사랑이 연주를 가르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아주 거친 날을 달래고 어리석은 슬픔을 얼려서 재우는 류트”(65-67행).²³⁾ 사랑은 이렇게 자신의 따뜻함과 달래는 힘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과 ‘상응하는’(corresponding) 엔티타입을 찾게 마련이라는 셸리의 생각은²⁴⁾ 그의 시 「사랑의 철학」(“Love’s Philosophy”)에도 드러나 있다. 이 시의 1연을 읽어보자.

샘은 강물과 섞이고
 강물은 바다와 섞이고,
 하늘의 바람은 영원히
 유쾌한 감정과 섞인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혼자가 아니니,
 만물은 신성한 법칙에 따라
 하나의 영혼 안에서 만나고 섞인다.
 내가 그대와 왜 못 섞이랴?

The Fountains mingle with the River
 And the Rivers with the Ocean,
 The winds of Heaven mix forever

With a sweet emotion;
 Nothing in the world is single,
 All things by a law divine
 In one spirit meet and mingle.
 Why not I with thine?—

샘과 강, 바람 등 자연세계의 모든 것이 각자 자신의 엔티타입을 만나 섞이는데, 화자가 엔티타입인 ‘그대’와 섞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사랑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섞다”를 뜻하는 “mingle”과 “mix”는 “얹히지 않은 혼합”의 “intermixture”와 품사만 다른 유의어이다. 사랑하는 대상과 섞이되 얹히지는 않음으로써 자신의 본래적 개체성은 유지하는 것이다.

위 시에서 셸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영혼 안에서 섞인다고 말한다. 셸리가 1818년 7월에 쓴 에세이 『사랑에 대하여』(*On Love*)는 그의 사랑관을 논할 때 종종 언급되는데, 「사랑의 철학」의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 에세이의 다음 문장에 주목할 만하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뿐 아니라 사람을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연결하는 끈이요 강제력이기도 하다”(632).²⁵⁾ 「사랑의 철학」이 말하는 바도 만물은 상호 연결돼 있다는 것이고, 인간에게도 사랑의 대상과 연결되고픈 열망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워런의 지적대로 셸리에게 사랑은 질병도 아니고 광기도 아니다(87). 그것은 특정 인물과, 더 나아가 만물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다. 사랑의 이러한 관념은 『에피싸이키디온』의 위 인용 대목(90-96행)에서 “얹히지 않은 혼합” 즉 사랑을 “하나의 격렬한 산포”, “하나의 고요한 편재”라고 부르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연결선들이 무한대로 거대한 망(網)을 이루어나갈 때 그 사랑은 산포 혹은 편재가 될 것이다.

『에피싸이키디온』으로 돌아와 셸리가 10연 이하에서 기존의 결혼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그의 이러한 독특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일처제 하에서는 사랑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한 사람에게 제한된 사랑은 ‘산포’도 ‘편재’도 되지 못한다. 밑에 인용하는 대목은 이 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목으로, 셸리는 에밀리아의 지혜가 깨우쳐준 바라고 말하지만(147행) 실은 그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체험하고 느낀 바가 짙게 반영돼 있다.

각자가 군중에서 연인이나 친구 한 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모두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들이어도
 차가운 망각 속에 맡겨야한다는 게
 교리인 저 거대한 종파를
 난 결코 따른 적이 없다. 비록 그 교리가
 근대의 도덕 규범에 있고, 저 가없는 노예들이
 지친 발걸음으로 걷고 있는 밝아 다져진 길이라 해도.
 이 노예들은 세상의 폭넓은 큰길을 따라
 죽은 이들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집을 향해 나아간다.
 사슬에 묶인 한 명의 친구, 어찌면 질투심 많은 적과 함께
 가장 따분하면서도 가장 긴 여행을 떠난다.

I never was attached to that great sect,
 Whose doctrine is, that each one should select
 Out of the crowd a mistress or a friend,
 And all the rest, though fair and wise, commend
 To cold oblivion, though it is in the code
 Of modern morals, and the beaten road
 Which those poor slaves with weary footsteps tread,
 Who travel to their home among the dead
 By the broad highway of the world, and so
 With one chained friend, perhaps a jealous foe,
 The dreariest and the longest journey go. (ll. 149-59)

셸리와 첫째 부인 해리엇(Harriet Westbrook), 그리고 둘째 부인 메리(Mary Godwin)와의 결혼생활이 왜 후반으로 갈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기서

짐작이 된다. 크로닌(Richard Cronin)은 이 대목이 결혼의 신성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거라고 평한다. 크로닌에 따르면 독자는 바이런적 냉소가 넘치는 이 대목에서 셸리의 입장에 동의하기보다 오히려 그의 생각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생각인지를 확신하게 되기가 쉽다(10). 셸리는 근대적 도덕에 따라 한 사람만을 배우자로 삼아 평생을 보내는 것을 “가장 파분하면서도 가장 긴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자유연애의 신념을 강하게 피력한다. 그는 일부일처제에 순응해 사는 사람들을 “가엾은 노예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셸리가 이토록 결혼제도를 혐오하는 이유는 이 연의 다음 연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진정한 사랑이란 금이나 흙과 달리 “나눈다고 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다(160-1행).²⁶⁾ 또 사랑은 “이해력”(understanding)과 같아서 많은 진리를 들여다봄으로써 더 밝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162-63행). 다시 말해 사랑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도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양한 진리를 하나씩 이해해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인간의 정신과도 같다. 마지막에 셸리는 사랑이 상상력의 빛과도 같이 우주를 채우고 오류를 시정한다고 말한다(163-69행).²⁷⁾

여기서 『에피싸이키디온』의 자전적 요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샌디는 이 시가 3명의 여성, 즉 시가 이상화하고 있는 테레사 비비아니와 셸리의 아내 메리, 그리고 메리의 이복동생이었던 클레어 클레어몽(Claire Clairmont)을 향한 셸리의 “삼각 욕망과 갈라진 애정”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276).²⁸⁾ 이 3명뿐 아니라 대학시절 셸리에게 성병을 옮긴 매춘부와 셸리의 첫 아내였던 해리엇도 등장한다. 매춘부는 “목소리가 악의에 찬 선율인 사람”(256행)이었으며²⁹⁾, 손으로 대기만 해도 “강렬한 독”(electric poison, 259행)을 퍼뜨리는 여인이었다. 해리엇의 경우는 “버림받은 엄마”(abandoned mother, 304행)라고 불리는데, 여기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해리엇을 버리고 메리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인 것에 대한 셸리의 자책감이 배어있다고 본다. 지금은 시인 셸리의 아내로서보다 소설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의 저자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메리 셸리는

277행에서 처음 언급된다. 셸리는 처음엔 그녀가 자신이 꿈꾸었던 “영광스러운 형상”(glorious shape, 278행)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차갑고 정숙한 달”(cold chaste moon, 281행)이라고 말한다. 또 달이 밤을 그 자신의 어둠에서 숨겨주듯 메리가 자신을 숨겨주었으나 그것은 “나의 고요한 마음속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게 밝아질 때까지”만이였다, 라고도 말한다(288-89행).³⁰⁾ 즉 메리에게서 찾은 안식이 오래가질 못했다는 뜻이다. 에밀리아가 태양처럼 나타나 셸리 내면의 모든 것을 밝혀주자 메리는 더 이상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한다. 셸리는 현재 메리와의 결혼생활을 “정숙하고 차가운 침대”(chaste cold bed, 299행)에 누워있는 것에 비유하며 자신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300행). 셸리는 메리와 에밀리아 두 여성이 자신의 삶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 순종하는 대지를 다스리는 두 개의 광원,
이 사랑의 세계, 이것은 나. 광원은 대지의
모든 열매와 꽃을 일깨우고, 자기(磁氣)를 띤 힘을
대지의 한가운데 심장에 던진다.

Twin spheres of light who rule this passive earth,
This world of love, this me; and into birth
Awaken all its fruits and flowers, and dart
Magnetic might into its central heart; (ll. 345-48)

하늘의 두 광원은 에밀리아(태양)와 메리(달)이고, 대지는 셸리 자신이다. 셸리는 아래 355행에선 두 여성을 “결혼한 빛들”(married light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셸리가 자신을 “사랑의 세계”라고 부른 후 목적어 ‘me’를 이탤릭체로 강조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자신이 지닌 사랑의 역량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달리 말해 자신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의 세계”로 칭한 듯하다. 그런데 태양과 달, 지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우주에

“아름답고 사나운”(beautiful and fierce) 한 혜성이 등장한다(368행). 이 혜성은 메리와 이복자매인 클레어이다. 클레어는 셀리가 메리와 사랑에 빠져 유럽대륙으로 도주할 때 동행했으며, 거의 두 사람의 결혼생활 내내 함께 지냈다.³¹⁾ 셀리가 클레어에게 느낀 복잡한 감정은 “매력과 혐오를 오가며”란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371행).³²⁾ 혜성은 “격변 속에서 파괴되어”(370행) 사라지나³³⁾ 셀리는 혜성이 다시금 그의 하늘에 나타나길 염원한다. 불륨은 태양과 달, 혜성의 “교대”(alternation)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단일한 남녀관계에 대한 “대체물”(substitute)을 끊임없이 제공한다고 설명한다(340). 결혼제도의 악폐에 대한 셀리의 가열한 비판은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그의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성 제도와 인습에 대한 셀리의 한결같은 비판과도 분명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에피싸이키디온』의 자전적 내러티브는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이 셀리가 주변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체험한 바에서 나오기도 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III. 사랑과 상상력의 관계

셀리가 이처럼 결혼제도에 속박당하지 않는 사랑을 상상력의 빛에 비유한 것은 흥미롭다(163-69행). 그는 사랑의 속성을 상상력의 작용에 빗대어 설명한다. 사랑과 상상력의 깊은 친연성은 다른 낭만기 작가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셀리만의 독특한 관념이다. 이 관념은 셀리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본고의 서론에서 인용했던 『시의 옹호』가 그러하다. 『시의 옹호』에서 셀리는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작용을 공감(sympathy)으로 파악한다.³⁴⁾ 개인이 상상력을 발휘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셀리의 생각에 시는 상상력의 결정체이므로 다른 어떤 문학장르보다도 상상력을 함양하는 데 적합하다. 시의 독자가 상상력을 펼쳐 작품 속 인물의 기쁨과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면, 현실세계의 타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셀리는

상상력은 모든 윤리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믿는다. 상상력이 있어야 우리 자신에 대해 느끼듯 남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상상력은 어떠한 원리로 발동하는가? 셸리는 『시의 옹호』의 서두에서 상상력이 발동하는 방식을 에올리언 하프(Aeolian harp)를 이용해 설명한다. 바람이 하프 위에 불면 하프가 저절로 울리듯이, 인간의 마음도 하프와 같아 그 위에 불어오는 외적·내적 인상에 감응하여 선율을 자아낸다. 그러나 셸리에 따르면 하프와 인간의 마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그리고 아마도 지각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수금과는 다르게 작동하는데, 소리나 움직임은 내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것들을 일으킨 인상에 반응하게 하여, 선율만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화음을 창조한다.

[T]here is a principle within the human being, and perhaps within all sentient beings, which acts otherwise than in the lyre, and produces not melody alone, but harmony, by an internal adjustment of the sounds or motions thus excited to the impressions which excite them. (675)

즉 인간의 마음은 하프처럼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은 상상력으로 외부의 상황에 직관적인 내면적 조정을 함으로써 화음을 만들어낸다. 시창작의 경우를 생각해보자면 시인이 시를 쓰려면 외부세계의 자극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에 내적 조정을 함으로써 시를 탄생시키는 것은 시인의 상상력이다. 외부세계와 내면세계의 조화로운 공존의 산물이 바로 ‘시’인 셈이고, 이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시인의 상상력이다.

셸리가 산문 『사랑에 대하여』에서 묘사하는 사랑의 발동 원리도 이와 유사하다.

바로 봄의 나뭇잎들의 움직임 속에, 푸른 대기에, 우리 마음과의 비밀스러운 상응이 발견된다. 말없는 바람에 능변이 있고, 흐르는 시내와 냇가 갈대의 바스락바스락 소리에 선율이 있다. 이 선율은 영혼 안의 무언가와 불가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들을 깨워 숨막히는 환희의 춤을 추게 한다. ...스턴은 자신이 사막에 있다면 삼나무를 사랑할 거라고 말한 적 있다. ... 따라서 누구든 이 욕구나 능력이 죽어버린다면,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고, 남아있는 건 한때 그였던 것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In the motion of the very leaves of spring, in the blue air, there is then found a secret correspondence with our heart. There is eloquence in the tongueless wind, and a melody in the flowing brooks and the rustling of the reeds beside them, which by their inconceivable relation to something within the soul awaken the spirits to a dance of breathless rapture Sterne says that if he were in a desert he would love some cypress So soon as this want or power is dead, man becomes a living sepulchre of himself, and what yet survives is the mere husk of what once he was. (632)

셸리가 사랑을 외부세계와 내면세계의 상응 혹은 조화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은 상상력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리고 셸리가 이 상응의 관계를 비밀스럽고 불가지한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애정의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상상력은 개입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외적 존재와 내 영혼의 비밀스럽고 불가지한 관계를 이해할 수 (혹은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나의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셸리는 위 인용문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달리 말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무엇과 부합하는 것을 외부의 세계에서 찾아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상응물이 사람이든 자연물이든 간에) 스스로를 “살아있는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이 “무덤”이란 단어는 셸리가 『에피싸이키디온』에서 일부일체제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대목에서도 등장한다. 여기서 셸리는 “하나의 대상을 창조하고, 하나의 형태를 창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 영원토록 자신을 위한 무덤을 짓는 / 영혼”은 “편협하다”라고 쓰고 있다(172-74행).³⁵⁾ 그는 일부일체제의 제도적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사랑 없는 결혼을 지속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위에서도 인용했지만

셸리 자신이 이미 사랑이 식어버린 아내 메리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라고 고백한다(299-300행). 그런데 셸리는 위 인용문에서 거의 동일한 비판을 사랑의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고 있다. 사랑의 대상을 자연세계에서든 인간사회에서든 찾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만 남은 삶,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셸리는 일부일처에 기반한 결혼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셸리에게 사랑과 상상력은 주요 속성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가치들이며, 어떻게 보면 둘 사이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셸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을 하는 것은 상상력을 동원해 시를 쓰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피싸이키디온』은 사랑에 대한 시이면서 동시에 시쓰기에 대한 시이기도 하다. 그가 에밀리아를 묘사하면서 연속적으로 쏟아내는 메타포적 이미지들은 그녀에 대한 사랑의 방증이면서 인간의 언어로는 상상력이 빚어낸 것을 불완전하게 담아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셸리는 『시의 옹호』에서 시인이 시를 쓰기 시작할 때면 그가 애초 받았던 영감은 이미 사라지고 있기 마련이라면서, 지금껏 세상에 나온 아무리 탁월한 시도 “시인이 원래 구상했던 것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697).³⁶⁾ 셸리가 『에피싸이키디온』에서 절박하단 느낌이 들 정도로 메타포들을 쏟아내는 것은 자신의 언어가 에밀리아가 체현하는 이상적 미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셸리의 또 다른 개념인 지적 미(Intellectual Beauty)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가 1816년에 쓴 시 「지적 미에 바치는 찬가」(“Hymn to Intellectual Beauty”)는 영원한 미의 형태를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상상력의 힘에 대해 노래한다. 셸리는 이 시에서 지적 미가 세상을 “암흑의 예속”(dark slavery, 70행)에서 해방시켜줄 것을 소망한다. 또 마지막 연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대와 그대를 / 담고 있는 모든 형상을 경배하는 사람, / 아름다운 영혼이여! 그대의 마법이 / 그 자신을 숭배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할 의무를 지운 사람”(81-84행).³⁷⁾ 셸리에게 지적 미는 상상력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찬가」에서 지적 미는 이 세계를 “변화무쌍한

날개”(inconstant wing, 3행)를 퍼덕이며 찾아오는데, 『시의 옹호』에서도 상상력은 “변화무쌍한 바람”(inconstant wind, 697)처럼 인간의 마음 위로 불어와 꺼져가는 숯 같던 그 마음에 다시금 불길이 일게 한다. 지적 미와 상상력의 활동에 “변화무쌍한”이라는 동일한 형용사가 쓰이고 있다. 지적 미의 변화무쌍한 활동으로 인해 일부일체제와 같은 예측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며,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 종국에 가서는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에피싸이키디온』에도 지적 미가 등장하는데, 지적 미는 “세상을 꿰뚫고 움켜쥐고 채우는” 존재이다(102-03행).³⁸⁾ 이 구절은 사랑이 세상에 고요히 두루 퍼져 있다는(즉 편재한다는) 『에피싸이키디온』의 다른 구절을 상기시킨다. 결국 지적 미는 상상력이면서 사랑인 것이다. 셸리가 「찬가」에서 지적 미를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존재로 상정하는 것도 그가 연모하는 에밀리아가 언어적 포착을 거부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연상시킨다.

『에피싸이키디온』 후반부의 다음 대목은 셸리에게 사랑이 상상력의 개념에 얼마나 인접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진실한 사랑은 결코

이처럼 구속받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번개처럼, 보이지 않는 맹위로,
 대륙을 꿰뚫는다. 하늘의 자유로운 바람의 숨결처럼,
 움켜쥐려 해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 ...
 ... 사랑은 죽음이나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사랑은 죽음의 낱골당을 터뜨리고, 사슬에 묶인 사지와
 번민하는 마음과 먼지와 혼돈 속에 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니까.

true love never yet

Was thus constrained: it overleaps all fence:
 Like lightning, with invisible violence

Piercing its continents; like Heaven's free breath,
 Which he who grasps can hold not; ...
 ... more strength has Love than he[Death] or they[arms];
 For it can burst his charnel, and make free
 The limbs in chains, the heart in agony,
 The soul in dust and chaos. (ll. 397-407)

사랑을 상상력으로 바꾸어놓고 읽어도 이 대목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본질상 변화무쌍한 상상력은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장애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활동한다. 상상력의 산물인 문학작품은 개별 작가의 생애 이후로도 영속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위대한 문학작품은 개인적 차원의 계몽과 정신의 위안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정치·사회 영역에까지 파급효과를 갖는다. 문학이 사회현실의 변화와 개혁에 일조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과 상상력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위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사랑의 강력한 힘으로 자유의 이상이 현실세계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사슬에 사지가 묶인 자가 자유롭게 되고, 파괴와 혼돈의 현실에서 고통받던 사람도 사랑의 힘으로 자유를 얻는다. 셸리에게 이처럼 사랑은 개인적 차원의 감정을 넘어서는 가치이고, 자유의 이념을 확산시킴으로써 현실세계의 개조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바로 사랑이 사회개혁의 추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셸리가 『시의 옹호』에서 역설했듯이 깊이 또 널리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뛰어나야 하고,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를 읽어야 한다. 시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사랑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IV. 끝맺는 말

지금까지 『에피사이키디온』을 중심으로 셸리가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셀리는 낭만기의 어느 시인보다 사랑의 속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수의 연애시와 산문에서 그만의 독특한 사랑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적어도 르네상스기(期) 이후 셀리처럼 사랑을 고도로 이론화한 작가는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에피싸이키디온』은 에밀리아라는 이상적 미를 갖춘 여인에게 바치는 찬가이지만, 특정 여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찬가라 할 수 있다. 셀리에 따르면 사랑은 두 영혼의 융합이다. 그러나 ‘엮이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고유한 개성은 보존돼야 한다. 사랑은 또한 특정 인물뿐 아니라 만물과 연결되고픈 열망이다. 셀리가 일부일처를 근본으로 삼는 결혼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은 일부일처제가 사랑의 대상을 강제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제한함으로써 사랑의 자유로운 속성과 역행하기 때문이다. 이미 사랑이 식은 부부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대상을 통해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실천될 때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는 쪽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셀리가 간과한 것은 아쉽지만, 그의 논리에서 일부일처제가 적폐의 온상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셀리에게 사랑이 상상력과 때론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속성을 지닌 개념이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일부일처제에 대한 가열한 비판도 사랑이 상상력과 공유하는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셀리는 사랑의 감정과 상상력 모두 개인의 내면과 외부세계 사이의 조화 혹은 상응의 결과 발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상상할 때만큼은 현실세계의 편견과 한계에서 자유롭듯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사랑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상상의 세계에선 현실의 억압과 모순이 사라진 이상사회를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셀리에게 개인적 관계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상상력과 결합한 사랑은 현실세계의 압제 및 정치적 부패와 맞서 싸우고 자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혁명의 무기가 된다.

Notes

- 1)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셀리의 모든 시와 산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Zachary Leader and

Michael O'Neill, editors. *Percy Bysshe Shelley: The Major Works*, Oxford UP, 2003.

- 2) 셸리의 시 이론이 그의 급진적 정치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선 졸고(拙稿) 「셸리의 메타포 이론: 루소의 『언어 기원론』 과 폴 드 만」(『19세기영어권문학』, 18권 2호, 2014, 189-213쪽)을 참조할 것.
- 3) 박경화. 「『에피싸이키디온』: 이상미 탐색과 구현」. 『현대영어영문학』, 56권 4호, 2012, 65-85쪽.
- 4) 특히 슬츠는 『에피싸이키디온』이 셸리가 번역하기도 했던 단테의 『향연』(*The Convivio*)의 제1칸초네(*canzone*)와 『새로운 삶』의 “은밀한(*covert*) 해석”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197).
- 5) “an idealized history of my life and feelings.” 본고에서는 원문의 인용문이 4단어 이상인 경우 미주에 인용문을 넣기로 한다.
- 6) “affective and artistic autobiography”
- 7) 그러나 실제로는 200-250부가 간행되었다고 한다.
- 8) “Sweet Spirit! Sister of that orphan one”
- 9) “even the dim words which obscure thee now / Flash, lightning-like, with unaccustomed glow”
- 10) “그대가 들여다보는 모든 형상들이 영광스러워 보인다”(All shapes look glorious which thou gazest on! 32-33행)
- 11) “Youth’s vision thus made perfect.” 셸리는 121행에서도 에밀리아를 “육신을 갖춘 4월과 같은 환영”(A vision like incarnate April)이라고 부른다.
- 12) 그러나 피터프로인트(Stuart Peterfreund)도 지적하듯 에밀리아가 온전히 이상세계에만 있는 존재는 아니다. 화자가 에밀리아를 만난 곳은 지상이라는 단순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그녀는 “중보자”(mediatrix)로서 이상세계에 도달하는 길을 가르쳐준다(278). 화자에게 에밀리아는 썩어 없어질 물질세계에서 영원한 이상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 꼭 만나야 하는 여성이다.
- 13) “A Metaphor of Spring and Youth and Morning”

- 14) “Would we two had been twins of the same mother!”
- 15) 셸리의 1817년 작 『라온과 시쓰나』(Laon and Cythna)에서 동명의 두 주인공은 남매이자 연인이다. 1819년에 쓴 희곡 『첸치 일가』(The Cenci)는 근친상간이 핵심 사건이다.
- 16) “I am not thine: I am a part of thee” 마지막 단어 thee의 이탤릭체 강조는 셸리 자신이 한 것이다.
- 17) “Veiled Glory of this lampless Universe!” “Sweet Lamp!”
- 18) 워런의 논문 87쪽 재인용. “intimately to mix and melt and to be melted together with [a] beloved, so that one should be made out of two.” 이 구문은 셸리가 직접 번역한 플라톤의 『향연』(*The Symposium*)에서 인용한 것이다.
- 19) “are we not formed, as notes of music are, / For one another, though dissimilar; / Such difference without discord, as can make / Those sweetest sounds”
- 20) “as in a fleece of snow-like air / The crimson pulse of living morning quiver.” 이 구절에서 주어와 동사의 수(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셸리의 실수이다.
- 21) 샌디는 『에피싸이키디온』을 탐색 로맨스(quest romance)의 한 변형으로 읽는다. 더프(David Duff)도 『에피싸이키디온』을 『결박에서 풀린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 『인생의 승리』(*The Triumph of Life*)와 함께 셸리가 중세의 탐색 로맨스를 내면화하여 재창조한 작품으로 본다(2). 셸리의 이 작품들은 심리적인 혹은 내면화된 탐색 로맨스라고 부를 수 있다. 중세 로맨스가 낭만기에 와서 어떻게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 재등장했는지는 블룸의 고전적 에세이 「탐색 로맨스의 내면화」(“The Internalization of Quest Romance,” 1970)를 보라.
- 22) “A child at play by itself will express its delight by its voice and motions; and every inflexion of tone and every gesture will bear exact relation to a corresponding antitype in the pleasurable impressions which awakened it; it will be the reflected image of that impression.”(675)
- 23) “A lute, which those whom love has taught to play / Make music on, to soothe the roughest day / And lull fond grief asleep?”
- 24) Sandy 273.
- 25) “[Love] is the bond and the sanction which connects not only man with man, but with

everything which exists.”

- 26) “True Love in this differs from gold and clay, / That to divide is not to take away.”
- 27) “tis like thy light. / Imagination! which ... / ... fills / The Universe with glorious beams,
and kills / Error, the worm”
- 28) “triangulated desire and divided affections”
- 29) “one whose voice was venomed melody.” 셸리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회색인 것이 이 여자
에게서 얻은 성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여겼다.
- 30) “until all was bright / Between the heaven and earth of my calm mind”
- 31) 클레어는 10대 후반에 셸리와 친분을 쌓던 바이런을 만나 그의 딸을 낳는다. 태어난 지 열
마 안 되어 죽은 셸리의 딸도 클레어가 낳은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메리는
이 소문을 강하게 부정했다.
- 32) “Alternating attraction and repulsion”
- 33) “wrecked in that convulsion”
- 34) 그래서 셸리의 상상력은 공감적 상상력(sympathetic imagin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 35) “Narrow / ... / the spirit that creates / One object, and one form, and builds thereby / A
sepulchre for its eternity“
- 36) “a feeble shadow of the original conception of the poet”
- 37) “one who worships thee, / And every form containing thee, / Whom, SPIRIT fair, thy
spells did bind / To fear himself, and love all human kind.” 와셔만(Earl Wasserman)에
따르면 자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애적 내성”(narcissistic self-reflection)을 의미한다.
셸리는 자기 경멸을 가장 큰 죄로 보았는데, 자기 경멸은 자아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적 미에 의해 계몽된 인간은 신성한 존재가 된다(195).
- 38) “Beauty furl'd / Which penetrates and clasps and fills the world”

인용 문헌

- Bloom, Harold.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Cornell UP, 1971.
- Cronin, Richard. *Shelley's Poetic Thoughts*. St. Martin's Press, 1981.
- Donovan, Jack. "The Storyteller."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elley*, edited by Timothy Morton, Cambridge UP, 2006. pp. 85-103.
- Duff, David. *Romance and Revolution: Shelley and the Politics of a Genre*. Cambridge UP, 2005.
- Hodgart, Patricia. *A Preface to Shelley*. Addison-Wesley Longman Ltd, 1985.
- Leader, Zachary, and Michael O'Neill, editors. *Percy Bysshe Shelley: The Major Works including Poetry, Prose, and Drama*. Oxford UP, 2003.
- McDayter, Ghislaine. "'O'er Leaping the Bounds': The Sexing of the Creative Soul in Shelley's *Epipsychidion*." *Keats-Shelley Journal*, vol. 52, 2003, pp. 21-49.
- Peterfreund, Stuart. *Shelley among Others: The Play of the Intertext and the Idea of Language*. Johns Hopkins UP, 2002.
- Sandy, Mark. "Quest Poetry: *Alastor* and *Epipsychidion*." *The Oxford Handbook of Percy Bysshe Shelley*, edited by Michael O'Neill and Anthony Howe, Oxford UP, 2013, pp. 272-88.
- Schulze, Earl. "The Dantean Quest of *Epipsychidion*." *Studies in Romanticism*, vol. 21, 1982, pp. 191-216.
- Ulmer, William A. *Shelleyan Eros*. Princeton UP, 1990.
- Warren, Andrew. "'Unentangled Intermixture': Love and Materialism in Shelley's *Epipsychidion*." *Keats-Shelley Journal*, vol. 59, 2010, pp. 78-95.
- Wasserman, Earl R. *Shelley: A Critical Reading*. Johns Hopkins UP, 1971.

Abstract

Shelley's Philosophy of Love: with a Focus on *Epipsychidion**

Sunghyun Jang
Korea University

Shelley had a deeper interest in the nature of love than any other poet in the Romantic era. He formulated his own theory of love in a number of his poems including *Epipsychidion* as well as in prose essays such as *On Love*. *Epipsychidion*, written in 1821, was devoted to Teresa Viviani, a young aristocratic woman whom the Shelleys befriended in Italy. The most extensive poetic inquiry into ideal forms of romantic love among his love poems, *Epipsychidion* offers “unentangled intermixture” as an apt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ideal love--love in which each partner's subjectivity is kept intact while being blended together. The term “sister” by which the poetic speaker calls Emilia (i.e. Viviani) reveals his fervent desire for a union with her in more than sexual terms. Shelley's bitter criticism levelled at monogamy, though it seems ethically unacceptable, becomes justifiable on the grounds that being chained to a monogamous relationship is likely to substantially impair your innate ability to love. It is worthy of note that Shelley perceives love in the terms used to describe imagination; in other words, love and imagination, to his way of thinking, have many properties in common. Sometimes the two words ar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t Korea University in 2021.

almost interchangeable. For Shelley, love is the most reliable means to progress toward attaining the ideals of a free society--ideals that can be embodied in concrete terms in the poet's imagination.

Keywords: Shelley, Love, Imagination, *Epipsychidion*, *On Love*

논문접수일: 2022.01.21

심사완료일: 2022.02.10

게재확정일: 2022.02.25

이름: 장성현

소속: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주소: (06099)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7길 13, 201호

이메일: sunghyun-j@korea.ac.kr

